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보도	2020.3.19.(목) 14시부터 보도가능	배포	2020.3.19.(목)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02-2100-2960)	담 당 자	보험과 사무관 이 정 찬 (02-2100-297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 중 기(044-201-3855)		자동차보험팀 사무관 조 숙 현 (044-201-4761)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02-3145-7460)		특수보험1팀장 이 준 교(02-3145-7466)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 임 주 혁(02-368-4276)		자동차보험팀장 박 중 영(02-368-43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이 경 기(033-739-3400)		자보심사운영부 팀장 우 영 일(033-739-3402)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최 윤 석(02-3702-8523)		자동차보험부장 김 영 산(02-3702-8590)

제 목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①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 ②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 ·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 ③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1 회의 개요

- '20.3.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20.3.19.(목) 14:00 ~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
-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업계) 손해보험협회

■ 주요 논의사항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교환 및 추진계획 논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요지】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2차관 말씀요지】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①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②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③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음.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①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
(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

②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③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④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不可로 규정 →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3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구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부기관장급 또는 국장급이 참석하며, 사안별로 관계부처를 추가

- (운영) 매반기별로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4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완료 시 한	소 관
-------	-------	--------	-----

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1. 음주운전자 자동차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자배법령 개정	'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상품개발	'20.하반기	손보협회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면책 도입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나.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자배법령 개정 등	'20.상반기	국토부, 심평원

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자배법령 개정	'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 ☑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 ☑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 ☑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보험료·보험금은 합리적으로

- ☑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 ☑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